

공사관련 기사 스크랩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게재일	2021.07.16	보도실적 분류	기획보도	관련사업	대외홍보
매체명	중도일보	제 목	개심사에서 공직자의 참모습을 느끼고 오다!		

중도일보

1951년 창간 中 韓 日 報 joongdo.co.kr

[기고]개심사에서 공직자의 참모습을 느끼고 오다!

김민규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장

임봉순 기자

최종 기사입력 2021-07-16 15:03



김민규 한국농어촌공사서산
태안지사장

7월의 따스한 여름 햇살에 일상생활에서 문득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는 계절이다.

그러나 아직도 코로나19마침표를 찍지 못한 상황이라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아니면 친구와 함께 바깥의 맛을 맘껏 느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때이다.

그래서 최근에 조용하고 시원한 산책길이 있는 서산8경 중 하나인 개심사에 아침 일찍 혼자서 다녀온 적이 있다. 개심사는 충청남도 4대 사찰 중 하나로 서산시 운산면 상왕산에 있는 삼국시대 백제 의자왕 9년에 승려 해감이 창건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봄이면 청벚꽃·겉벚꽃·왕벚꽃으로 더욱 유명한 정감어린 사찰이다.

개심사는 "마음을 여는 절" 또는 "마음을 열리게 하는 절"이라는 뜻이다. 특히 사각형 연못이 있는 외나무다리를 건너면 연꽃 위를 걸어 극락으로 들어가는 기분이 들어 머리가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때 공직자로 이 세상을 사는 나에게는 여기에 오면 나 자신의 허황된 욕망의 허물을 벗고 나의 본질을 생각해 봄으로써 개심사에 머무는 시간만큼은 마음을 뒤돌아보아서 너무 좋다.

지금쯤 입적하셨지만 개심사 주지스님이셨던 선광스님은 무릇 모든 일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면서 내 안에 존재하는 또 다른 나를 어떻게 다스릴지 가르침을 주셨다. 이 가르침은 공직자로서 21세기를 살아가는 현실에서 본문에 맞게끔 몸가짐을 단정하게 해 주고, 의욕을 갖고 하되 탐하지 아니하게 하는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나침반이 되곤 한다.

그런만큼 오솔길과 개울을 건너 약간의 땀을 시원한 바람으로 식이면서 다양하게 구불어진 소나무를 친구 삼아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이 곳 개심사는 나에게는 너무 좋다.

공직자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것인지를 느끼면서 마음의 창을 열고 돌아오는 길에 개심사 아래에 위치한 신창저수지의 질푸른 물이 나를 반갑게 맞아 준다. 신창저수지를 관리하고, 내가 근무하는 직장인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인지라 너무나도 정겨운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상기후가 빈번한 2021

게재일	2021.07.16	보도실적 분류	기획보도	관련사업	대외홍보
매체명	중도일보	제 목	개심사에서 공직자의 참모습을 느끼고 오다!		
년도에도 농업인들에게 풍년농사를 약속드리기 위해 직원들과 다 함께 농업용수를 굳건히 공급해 준 저수지인만큼 감사의 마음이 앞서며, 심장박동이 다시 힘차게 뛴다. 다음 가까운 시일에는 평생직장의 터전으로 살아온 서산A지구 간척지와 천수만을 찾아가서 삶의 방향을 찾아보고, 나 자신에게 되물어 볼 것이 하나 더 있다. 소박함과 은은함이 배어나는 공직자로서 과연 나는 청량한 삶을 살고 있는지?<김민규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장>					